

“농어촌 수도, 해남”...탄소중립 핵심거점 조성 ‘속도’

기후변화대응센터·국내 최대 농업연구단지 조성 ‘박차’ 삼산면 상가리 일원 관련 기업 유치 농업 혁신 기반 다져

해남군이 농어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며,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6일 해남군에 따르면 명현관 해남군수는 2025년 신년사를 통해 해남의 장기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농어촌 수도 해남’ 비전을 소개하며 다 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해남군은 기후변화대응과 탄소 중립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 농식품 분

야 기후변화대응의 핵심 거점이 될 국 립기후변화대응센터와 국내 최대 규모 의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해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산업으로서 농어업의 패러다 임을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는 농림축 산식품부 직접 사업으로 2027년 운영을 목표로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 일원 3ha 규모로 조성된다.

지난 2021년 공모 선정된 이래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기본계획 구역



해남에 추진 중인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감도.

(해남군 제공)

등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한편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연내 건립공사 에 착공할 예정이다.

센터는 기후관련 데이터 관리·연구, 탄소감축·적응 관련 정책 지원, 농업인·소비자 교육 및 홍보 등을 통 해 대한민국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거점 시설로 운영될 방침이다.

해남군은 이에 발맞춰 인근에 국내 최대인 100ha 규모의 기후변화대응 농 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전남도 과수연구소, 군 농업연구단지 를 연계한 클러스터에는 고구마 연구센 터, 청년농업인 임대농장, 과학영농 실 증단지 등이 들어서게 된다.

향후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의 중 요성을 인식해 해남군은 1단지에 이어 삼산면 상가리 일원에 약 21ha 면적의

농업연구 2단지 조성도 추진하고 있 다.

현재 조성되고 있는 1단지가 대응 센터 연관시설 설립 등 집적화된 농 업연구단지 조성에 중점을 뒀다면 2 단지는 연구, 유통, 생산 시설 등 농 업 관련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 성화와 농업 혁신을 위한 기반을 다 질 예정이다.

명현관 군수는 “기후변화대응과 탄 소중립 농업의 핵심 거점이 될 농업연구단지 조성의 속도를 높여겠다”며 “농 어촌 수도, 해남 비전이 신산업 전환과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 잡는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진도 공공비축미 매입, 광주·전남 ‘1위’

2년 연속...고품질 쌀 유통 20억 수매보전금 지원

진도군 공공 비축미 매입의 특등 비 율이 광주·전남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16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에 내린 두 번의 집중호우와 벼멸구 피해 에도 불구하고 진도군 공공 비축미의 특등 매입 물량은 51.7%인 7만3천689가 마로 광주·전남에서 특등 비율 2년 연 속 1위를 달성했다.

진도군은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품질의 쌀을 유통하기 위해 ‘쌀 생산 농가 수매보전 지원금’ 20억원을 지원 했다.

특히 못자리에서부터 분당 식재 후 관리를 위한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등을 진행해 약 33억원 이상을 지원 하는 등 관내 쌀 품질 유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농가별 수매 가능한 잔여 물 량을 파악 후, 전남도에서 시·군별로 배정하는 수매 물량 외에 1만8천81가마 를 추가로 확보하며 수매에 노력 되는 농가가 없도록 농정업무를 추진해 농

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수해와 벼멸구 등으로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고품질의 쌀 생산을 위해 애써 준 농업인들에게 감사하다”며 “계속된 쌀값 하락으로 시름에 잠긴 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라며, 앞으 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 다.

한편 진도군은 농업 관련 부서 공무원이 수매 현장에서 농가를 직접 만나 현장 지도를 하고, 안전사고 예방 강조 와 함께 애로사항을 꾸준히 청취할 계 획이다.

/진도=박세권 기자



진도군이 쌀값 하락 등에 대응해 공공 비축미를 매입하며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해 11월 공공 비축미 수매 현장. (진도군 제공)

무안군, 여객기 참사 희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주민·자동차·재산·부동산 상속세 등...마을세무사 상담실 운영도

무안군은 16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 사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번 사고로 희생된 사망자와 유 가족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 혔다.

무안군은 2024년 지방세 중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환급하고, 2025년 지방세 부과·인 세목을 대상으로 군 의회 의결을 거 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추가 감 면할 계획이다. 특히 유가족은 부동산 상속세에 따른 취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 다. 또한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 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도 최대 2년 까지 연장해 유가족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세의 수입도 개별법령에 근거해 납부 기한 연장·분할납부 등도 지원한다.

무안군은 무안국제공항에서 전남도와 합동으로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하며 국세와 지방세 상담을 지원했 고,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무안군 재 난피해자통합지원센터 내 지방세 상담 창구를 휴일 없이 운영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희생자와 유가족 에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다.

/무안=김성호 기자

영광 양식 참조기, 8만미 올해 첫 위판

자연산 가격 65%수준...양식 기술력 확보 굴비산업 육성

영광군은 16일 “지난 14일 양식 참조기 449상자(7t)를 수협법성위판장에서 출하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에 출하한 참조기는 2023년 6월 에 생산한 참조기 종자를 해상가두리 양식장에 입식 한 지 1년6개월 만에 마 리당 평균 110g 이상으로 성장시켜 출 하한 것이다.

위판 가격은 한 상자(120미)당 46만 원으로 자연산 가격에 65% 수준인 것 으로 나타나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고 품질도 좋아 양식 참조기 선호도가 점 점 높아지고 있다.

영광군은 굴비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8년간 참조기 수정란 구입비 및 종자 입식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도 해양수산 과학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양 식 기술력을 확보해 대량 생산을 위



한 산업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 다.

영광군 관계자는 “참조기양식은 고수 온(30℃)과 질병에 강한 품종으로 아열대 기후변화에 적합한 양식품종으로 평가받 고 있다”며 “올해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참조기 수정란과 종자를 분양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영광=김동규 기자

완도군,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49세 이하...200만원 지급

완도군은 16일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5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 다”고 밝혔다.

결혼 축하금은 200만원이며,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 청년 부부로 재혼의 경우에도 가능하 다.

특히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격 조건은 ▲혼인신고 이후 현재 까지 부부 모두 전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부부 중 1명(신청 자)은 신청일로부터 축하금 지급일까 지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 다.

신청자의 배우자는 도내 주소 이전 이 가능하지만 타 시도 전출 시 지급이 제외된다. 결혼 축하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일시 지급한다.

올해는 총 70쌍의 부부를 지원하고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종료된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이므로 기한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제출 서류를 갖춰 주 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누리집-군정 정보-행정 정보-고시 공고를 참고하거 나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061-550-52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군은 지난해 청년 부부 결혼 축 하금으로 77쌍의 부부에게 1억9천400 만원, 신혼부부 주거 비용 대출 이자 지 원으로 7쌍의 부부에게 1천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완도=윤보현 기자

강진군, ‘출생기본수당’ 20만원 지급

이달부터 18세까지...전년도 1월1일 이후 출생아 대상

강진군은 16일 “이달부터 출생기본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강진군은 저출산 문제 해 결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으로 2025년 1 월부터 출생기본수당을 본격적으로 지 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출산을 장려하고, 학령 기까지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해 부모

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출생기본수당은 2024년 1월1일 이후 전남도 내에서 출생신고를 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의 1세부터 18세까 지 매월 20만원씩 지급된다. 지급 금액 은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10만원씩 부 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출생아와 보호자(부모 모두)가 출생 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도에 주민 등록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며, 예외적 으로 2024년 출생아에 대해서는 보호자 중 한 명이 전남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았어도 출생기본수당 신청 전 주소를 전남도로 옮기면 지급이 가능하다.

김은숙 군민행복과장은 “이번 출생 기본수당 도입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 유입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전남서부문화유산돌봄센터, 설 맞이 문화유산 돌봄활동 강화

26일 임시공휴일 현장활동...31일 대체휴무

전남서부문화유산돌봄센터는 16일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7일 임시 공휴일 현장 돌봄활동을 진행하고, 설 이후 31 일 대체 휴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돌봄센터는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경미한 수리, 일상관리 등을 통해 전 남 서부권 9개 시·군 319개소의 국가 지정 및 도 지정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폭설, 산

불, 지진 등 자연 재난 발생 시 긴급조 사, 응급조치, 복구지원 등의 활동을 통 해 문화유산의 피해를 예방하고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돌봄센터는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475건의 경미수리를 완료했 으며, 매월 370건 이상, 연간 4천500건 이 상의 일상관리를 통해 문화유산 예방 관리와 관람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또한 국가유산청 심사에서 A등급

평가를 받아 우수 직원이 국가유산청 장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돌봄센터는 이를 통해 고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 공하며, 지역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알 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인석 전남서부문화유산돌봄센터 장은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유산을 관람하고 주변에 있는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신안군정원수협동조합, 주요 성과 보고 공유

郡 협력 ‘1섬1정원’ 조성...주민 소득증대 등 실현

전국 최초 신안군정원수사회적협 동조합은 16일 “신안군청 대공연장예 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며 지난 1년6 개월 간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신안군과 정원수협 동조합의 협력으로 1섬1정원 조성 및 주민 소득증대, 사회공헌, 사회적 가치 등을 동시에 실현하며 혁신적인 군 민 삶의 질 향상 성과를 공유하며 조 합의 지속가능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 시했다.

지난 2023년 5월에 설립된 정원수협

동조합은 31만 분의 목목 생산으로 83 억원의 군 예산 절감과 15억원의 조합 원 소득을 달성했으며 2024년에는 138 만 분 생산으로 423억원의 군 예산절감 과 65억원의 조합원 소득을 이뤄내며 의이례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전문적인 목목 생산 기술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 으며 지속 가능한 수익 기반을 구축했 으며 이러한 노력은 조합원의 경제적 안 정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경제 활성화 로 이어졌다.

이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정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 과 청·장년층의 정착 사례를 창출하며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다.

지난해에는 조합 사례가 ‘전국 기초 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 회’에서 일자리 및 고용환경 분야 최우 수상을, ‘2024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 서 문화관광 분야 대상을 수상하며 그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박영철 정원수협동조합 이사장은 “출발 1년 만에 조합원 457명을 확보하 고 평균 2천5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하며 ‘100평의 기적’을 실현했다”며 “앞으로 도 군민에게 소득 창출과 희망을 안겨 주며 이러한 노력은 조합원의 경제적 안 정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경제 활성화 로 이어졌다.”

/신안=양홍 기자